물류부두 빠진 삼호지구 개발안
대불·용당부두 기능 축소 '논란'

목포항만청·대불산단 업체, 전남도에 재검토 요청

전남도의 '영암 삼호지구 도시계획 정비안'에 따라 대불 부두와 용당 부두가 폐쇄 또는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F1국제 자동차경주대회 개최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 해군 제3함대 이전, 조선산업 발달 등으로 장래 도시발전 가능성이 커 이에 부응하는 도시 공간구조 개편과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암 삼호지구 도시계획 정비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대불·용당부두 주변지역을 국토 서남권의 물류·교역·해양관광 중심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변 경관개선과 함께 중심 상업기능으로서의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시설로는 무역·컨벤션·스포츠·쇼핑센터 등의 상업기능과 요트마리나, 크루즈부두, 선상공원 등의 도시 기간시설이 도입돼 선진형 미래도시 면모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계획안에는 물류·교역 개발이 포함돼 있지만 도면상 물류부두는 찾아볼 수가 없어 완전 폐쇄가 아니냐는 의문도 일으키고 있다.

대불부두는 대불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제강, 기계, 석유화학제품 등 각종 해상화물을 처리하고 있고, 용당부두는 삼학도 복원사업에 따라 삼학부두의 대체부두로 연안화물 처리를 위해 개발된 항만이다.

하지만 전남도에서 발표한 계획안대로 추진된다면 부두 폐쇄에 따른 공단입주 기업들의 물류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없어 목포항의 가장 큰 약점인 배후산업세력 및 배후산업단지 부족난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는 학계와 경제계, 대불산단 업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목포 지방항만청 역시 영암 삼호지구 도시계획 정비계획(안)에는 영암방면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목포항의 주요 부두기능이 크루즈부두, 해상공원 및 선박박물관 등으로 배치돼 있어 국가관리항인 목포항의 개발 및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목포 항만청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불 국가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대불부두 선석 추가개발 및 용당 일반산업단지 지원을 통한 용당부두 기능 정상화 계획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전남도에 요청했다.

■삼호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대불산단 업체 관계자들은 "대불부두의 기능을 축소 또는 폐쇄할 경우 대불산단 뿐만 아니라 타지역과의 물류 흐름이 중단되고, 대불산단 입주 및 개발제한 등으로 신규투자를 꺼리게 돼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며" 대불산단 내 입주업체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계획안은 중·장기적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고 개발을 하게 되면 물류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두가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진도 인터넷 사랑방 정보화 교육

진도군 조도면 주민 20여명이 최근 면사무소 인터넷 사랑방에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다. 조도면은 150여개 섬으로 구성된 지역특성상 정보화 교육 기회가 부족함에 따라 전문 강사를 초빙, 오는 7월까지 컴퓨터 기초와 전자우편 보내기 등 교육을 실시한다. 〈진도군 제공〉

무안 상징 '3색 경관' 만든다

영산강권-해안권-도시권 나눠 특색있게 조성

무안군이 지역을 영산강권과 해안권, 도시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을 갖춰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는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7일 무안군이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기본 경관계획 용역안에 따르면 무안을 '바다와 구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국제도시'로 경관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역발전 자산으로서 무안의 경관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안경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용역안은 무안을 지역특성에 따라 ▲영산강 경관권역과 ▲해안권 경관권역 ▲도시 경관권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상징성을 부각시키도록 했다.

도시 경관권역의 경우 기업도시지역과 남악신도시, 무안·일로읍 등 기존 도시지역으로 아름다운 소도시 경관을 유지하면서 도시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향토문화경관이 살아 있는 미래형 녹색도시로 조성된다.

해안 경관권역은 함해만과 탄도만, 청계만을 끼고 있는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안의 특색있는 경관과 갯벌을 보호하고 친자연적인 해안시설물로 정비하며 정취있는 포구경관을 형성하도록 했다.

또 영산강 경관권역은 영산강 주변과 샛강의 조망경관을 보호하고 강변 건물의 유형 설정 시 영산강 경관도 고려하도록 했으며 수변에 영산강 고대문화권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안군은 이 같은 내용의 용역안에 대해 지난 8일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도에 기본경관계획 승인신청을 낼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경관의 바람직한 보전, 관리,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해남 아열대 과수 명품으로 키운다

郡, 무화과·시설부추·약용작물 등 특화품목 육성

해남군이 아열대 과수, 시설 무화과, 시설 부추, 약용작물 등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 농업의 '블루오션' 개척에 나섰다.

해남군은 농민들이 애써 생산하고도 수급불안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노지채소와 밭벼의 대체작목으로 시설 밤호박, 딸기, 무화과, 부추, 인삼, 엽연초, 약용작물, 아열대 과수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농자재 등을 지원해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군은 옥천·계곡면에 5ha 규모의 밤호박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비가림 시설과 관수 시설을 지원하고, 북일면에 고소득 작목인 시설 부추의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 규모화해 나간다.

군은 시설무화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 개폐기 및 운반기 시설에 10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엽연초 생산농가를 위해 9천여만원을 들여 생산자재와 자동분무기 등을 지원한다.

군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한계농지를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도라지, 더덕, 함초, 황칠, 하수오 등을 품목별로 ha당 사업비 500~900만원을 지원해 점차 규모화를 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점차 온난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작물인 파파야, 구와바 등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 아열대 과수단지를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의 특성을 살린 특화품목을 육성해 농가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 이라며 "전업화와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어장 맞춤형 김 종자보급
수산기술사업 목포지소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 목포지소(소장 이황복)는 지역별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종 발굴과 보급에 나선다.

이번 '어장 맞춤형 김 종자보급사업'은 김 양식어업인이 자신의 어장에서 채집한 우수한 김 엽체를 제공하면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포자를 배양·증식시켜 다시 분양하는 체계이다. 이번 사업은 매년 김 생산이 불안정하고 동일한 품종, 종자라도 어장에 따라 다른 작황 결과를 보임에 따라 추진됐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光州日報 전남서부취재본부
(061-278-8111)
목포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함평 해남

본 부 장 이종태
정은조 국장
임영춘 부국장
조완남 부장
박현영 부장
이상선 부장
박희석 차장
조익상 기자
황운학 기자
김민준 기자
김병관 기자

완도 고금면에 다목적 체육센터

완도군 고금면에 다목적 체육센터가 세워진다.

완도군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3억원을 지원받아 고금면 덕암리에 연면적 1천872㎡, 지하 1층·지하 2층 규모의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실시설계 및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절대 부족한 섬 주민들의 문화, 체육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됐으며, 완도군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으로 가능해졌다. 다목적 체육센터는 실내 종목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비롯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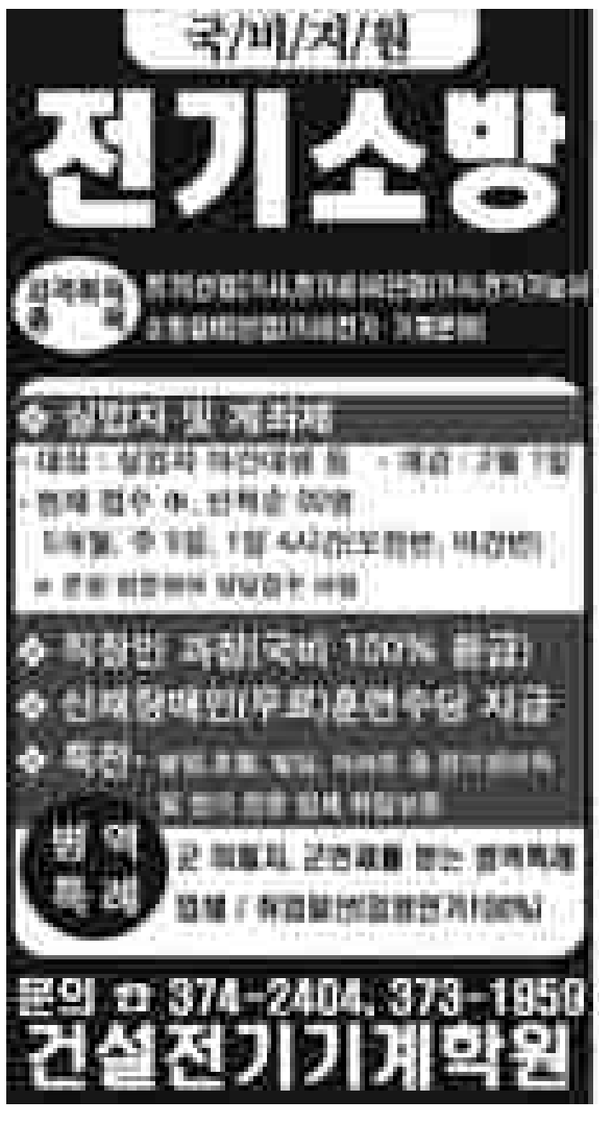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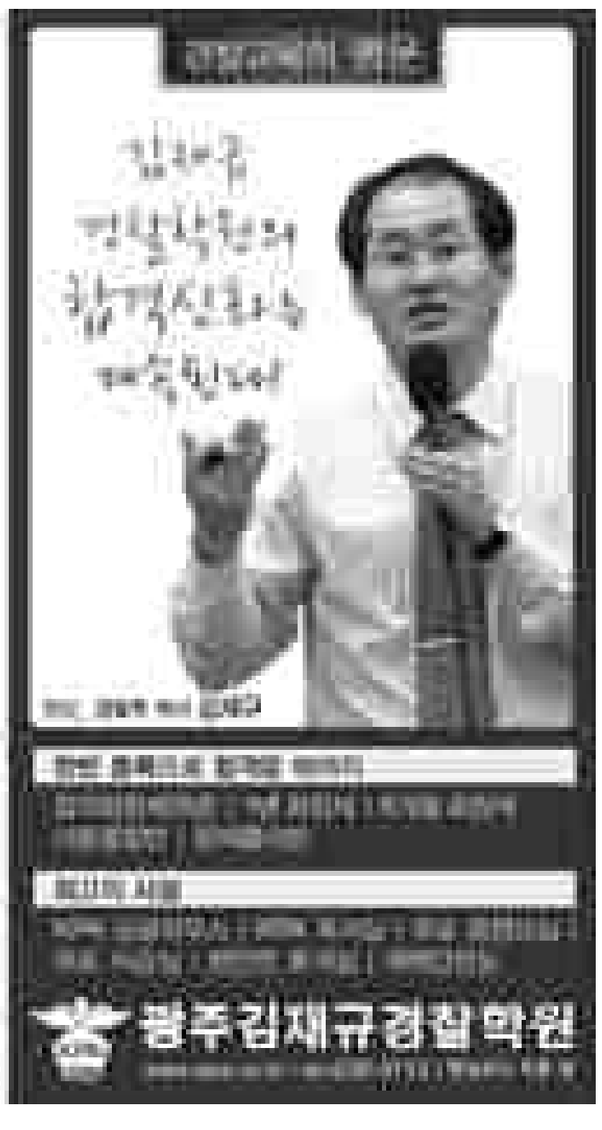
뒤늦게 배우는 기쁨 '내나이 육십'

목포 평생교육원 60대 학생들 문집 펴내

"여지껏 살아온 내 삶이 서러워/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날 보니/ 쭈글쭈글한 주름과 흰 머리/ 벌써 내 나이 육십… / 이제야 비로소 세상이 보이는구려"

뒤늦게 배우는 기쁨을 '내나이 육십'이라는 시로 표현한 정해순(60·초등 7반)씨는 "지독하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자녀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다"며 "이제 나이 들어 자녀들은 멀리 떠나있고 혼자서 외롭고 쓸쓸했는데 한글 배우러 오는 게 얼마나 좋은 지 모른다"며 활짝 웃었다.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속 평생교육원(원장 허재심)에서 공부하는 60대 학생들이 문집을 처음으로 펴냈다.

'글을 알면 세상이 보여요'라는 제목의 문집에는 평생교육원 성인학생 240명이 지난해 성인문해(文解)교육계획에 따라 한 해 동안 공부했던 학습성과물인 수필, 감상문, 일기, 그림, 삼행시 등이 실려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